

저곡전가팔곡 | 이휘일

원풍(願豊)

세상(世上)의 바린 몸이 견무(畎畝)의 늘거가니

밭것일 내 모르고 하난 일 무사일고

이 중(中)의 우국성심(憂國誠心)은 년풍을 원하노라

춘(春)

농인(農人)이 와 이로되 봄 왔네 바티 가세

압집의 쇼보잡고 뒷집의 따보내네

두어라 내집부터 하랴 남하니 더욱 도타

세상이 버린 몸이 밭이랑 사이에서 늪어가니

세상 밖의 일은 내가 모르고, 내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인가

이 속에서 나랏일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은

계속 풍년을 원하노라

이웃 농부가 찾아와 이르되, 봄이 왔으니 밭에 가세

앞집에서 소를 보내고 뒷집에서 따비를 보내네 **농기구의 일종**

두어라, 내 집 농사부터 하랴, 남 부터 먼저 하니 더욱 아름답구나